

“성도로부터 사랑의 목회자라 증거받아야”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정현 목사) 주최 ILP(I Love Pastor) 세미나가 최근 나성서부교회(담임 김승곤 목사)에서 개최됐다. 주강사로 초청된 장영춘 목사(뉴욕 퀸즈장로교회)는 성역 50주년을 맞아 성공적인 이민 목회자로서의 경험담과 목회

인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이정현 목사는 ‘목회자의 치유사역’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오늘날 이민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 감정적인 상처

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말씀과 설교사역을 통해 성도들을 영적으로 치료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적극적인 치유와 기도사역을 통해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어 전인적인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 목사는 “이민교회는

일’로 지키며 말씀의 사역자를 존경하며 감사하는 날로 정했다고 말했다. 미국 루터교의 경우, 9월 한 달을 목회자에게 감사하는 달로 정해 목회자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시기로 지키고 있다. 이정현 목사는 “한국의 경우 스승의 날과 같이 목회자



(왼쪽) 장영춘 목사, (오른쪽) 이정현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ILP 세미나

5월 3째 주일 목회자 주일로

의 노하우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장 목사는 “목회자는 성도들로부터 성경과 사랑의 목회자라고 증거 받아야 한다”며 “목사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 목사는 “인간의 지식과 노력이 아

와 정신적인 문제들을 갖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이 많다”며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감정적인 상처들을 신앙과 말씀으로 잘 순화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의사들은 ‘싸이코 소 메틱’이라고 모든 질병들의 70%는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이 돼 육체적인 질병을 야기시킨다고 하니

상처 입은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의 쓴 뿌리와 같은 상처들과 견고한 진들을 목회자의 치유사역을 통해 해결해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빠르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ILP(I Love Pastor)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목사는 오는 5월 3째 주일을 ‘목회자 주

주일을 정해 지키는 교단도 있다”며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갈라디아서 6장 6절)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도들과 목회자간의 거룩한 사랑과 존경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고린도교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골로새교회의 빌레몬 같은 성도들은 바울은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며 도운 이들”이라며 “위대한 사도 바울의 역사는 오늘날 ILP 운동을 일으킨 평신도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목회자 사랑 운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ILP 세미나에서 장영춘 목사는 ‘예배론과 직분론’, ‘예수

모델 목회’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우주열공학 정재훈 박사가 ‘믿음을 보이는 용기를 가져라’, Gaad Corporation 대표 정명성 장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지재일 기자)

‘아바타 신드롬’, 美 교회 ‘3D 예배’까지 등장



진짜 사람처럼 보이는 3D 홀로그램과 나란히 서 있는 미국 웨스트 릿지 교회의 토니 모건 목사(오른쪽). 누군가 앞에서 보고 있다면 실제로 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이 느낄 것이다.

‘홀로그램’ 설교자 나와... 찬반 양론 형성

오늘날 미국에서는 멀티 사이트 모델을 수용한 교회들이 늘면서 스크린에 비친 설교자를 바라보며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소한 광경이 아니게 됐다. 설교자는 이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고 교인들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한다. 그러나 설교자가 마치 지금 이 순간 강단에 ‘서 있는 듯’ 눈을 작

각하게 만드는 3D 홀로그램을 보며 예배를 드릴 날도 멀지 않았을

지 모른다. 최근 미국에서는 교회 예배에 3D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애틀랜타 웨스트 릿지 교회의 토니 모건 목사는 얼마 전 3D 홀로그램 전문 회사인 클락 프로미디어사를 방문했다. 마돈나 등 유명 뮤지션들의 콘서트에서 3D 기술을 담당해 온 이 회사는 최근 교회 예배나 집회에 이미 2D 영상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

안, 미국 전역의 교회로 시장을 확대하고 나섰다.

회사 관계자들은 모건 목사에게 그들의 3D 기술을 시연해 보였고, 그 순간 모건 목사의 옆에는 진짜 사람 같은 홀로그램이 나타났다. 영화 등을 통해 접해 온 3D 영상은 모건 목사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지만, 실제와 거의 비슷한 사람의 형상으로 본 것은 처음이었다고 그는 밝혔다. 만약 앞에서 누군가 보고 있었다면 영락없이 두 사람이 나란히 선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그는 곧 자신의 교회에 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모건 목사는 이러한 생각을 그

의 블로그에 밝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로그에는 찬반 여론이 형성됐다. 어떤 사람들은 3D 기술이 예배에 사용된다는 데 흥미를 나타내며, 예배를 보다 활기차게 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다. 교인이라고 밝힌 한 사람은 “3D 기술로 설교자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면 앞으로 과연 누가 교회까지 가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겠는가. 돈만 내면 집에 편안히 앉아 자신만의 설교자를 가질 수 있는데...”라고 회의론을 나타냈다.

..... 2면에 계속 ▶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SMOG CHECK

삼성이 어렵습니다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신뢰와 믿음,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한분 한분 소중한 고객에게 맞추어 최고의 실력으로 확실한 해결을 약속 드립니다.

- 이민법
 - 투자이민(EB5)
 - 임시 및 정식 영주권 100% 승인 실적
 - 불경기로 인한 각종 비자 연장 (특별상담)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 주재원 비자 및 이민 지사실업 / 취업이민(1,2,3순위)/가족 초청 이민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 추방재판
- 기업법 / 소송
- 파산법 / Chapter 7, 11, 13
- 부동산법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93년)
-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 연방법원 및 지방법원 정회원 변호사
-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 미주 상공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 국제 Law Firm Couderd Brothers 근무
-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외 수천 건 해결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1 J타워 6층
822-510-5200

이문규 법률그룹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IRVINE 949-442-8370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광고 등장

공중파 타고 전역에 방송... 성경 권위 주장

미국 공중파 방송에 성경의 권위를 알리는 광고가 등장했다.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약 두 달간 미국의 대표적 보수 TV 채널인 폭스뉴스를 통해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이 광고는 로마서 1장 16절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를 주제로, 다양한 출신과 계층의 개인들이 나와 자신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성경 말씀의 권위에 대한 확신을 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광고를 시작한 미국의 기독교 변증사역 단체인 앤써즈 인터네셔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확신이야말로 지금의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는 빌리 그래함전도협회 대표 프랭클린 그라함 목사가 올해 처음 전한 메시지가기도 한데, 단체측은 이 메시지로부터 광고의 영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광고는 공중파를 통해 방송될 뿐 아니라 폭스뉴스 온라인판에도 동시 게재되며, 이외에도 MSNBC 온라인판, USA투데이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미국인들



기독교 변증사역 단체 앤써즈 인터네셔널이 폭스뉴스를 통해 방송하고 있는 광고의 한 장면.

과 만나게 된다. 특히 오프라인 신문 광고에는 나태, 결혼, 공공 영역에서의 종교 문제 등 미국의 현재 사회적 현안들에 지점이 되는 성경 구절들을 실을 예정으로, 앤써즈 인터네셔널측은 광고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문제들을 대할 때 성경의 권위를 존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 커뮤니티들은 신청을 통해 각 지역

옥외 게시판, 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알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 단체는 사이트(iamnotashamed.org)를 통해 비디오 성경 낭독 릴레이도 함께 전개하고 있는데, 참여를 원하는 각 개인이 앞 사람이 읽은 다음 구절부터 4구절씩을 낭독하고, 자신이 성경을 낭독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손현정 기자>

이슬람 명예살인, 매년 여성 5천 명 목숨 앗아가

유엔 인권최고대표, “여성 학대의 극단적 형태” 비판

매년 이슬람의 명예살인으로 목숨을 잃는 여성의 수가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FP통신은 4일 발표된 나바테렘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UNHCHR)의 성명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명예살인(honor killing)’은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파키스탄, 터키 등 거의 전 세계의 이슬람 국가들에서 오래 전부터 자행되어 온 악습 중 하나다. 특히 이같은 명예살인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나바테렘 필레이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평생을 폭력이나 성폭행,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고, 이 중 이슬람 국가들에서 매년 5천 건이 넘도록 발생하고 있는 명예살인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학대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들 국가들에서 명예살인이 극히 가벼운 처벌에 그치거나, 아예 처벌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 명예살인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제법은 여성의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 국가의 분명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래 전부터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순결이나 정조를 잃은 여성은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것으로 간주해, 아버지나 남편, 오빠나 남동생 등이 해당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종교적 관습처럼 행해지고 있다. 가족 안에서의 살인이 명예란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살해 방식이 화형, 교수형, 생매장, 신체 절단 등 지극히 잔인해 여성 학대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또한 실제로 부정을 저질렀는지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단순히 의심만 갖고 여성을 살해하고, 성폭행을 당했거나, 집안이 정해 준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거나, 길을 가던

낮선 남성과 이야기를 했다거나 하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살해 당하는 여성들의 경우도 빈번히 보고되고 있어 명예살인은 이슬람 내의 어두운 여성 인권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 준다.

명예살인에 대한 실태 보고가 처음으로 이뤄진 것은 2000년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 이후 명예살인에 반대하는 운동이 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일부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슬람 내에서는 명예살인이 묵인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2003년 요르단 정부는 명예살인을 저지른 범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을 개정하고, 명예살인을 정당화하는 법 조항을 삭제했지만, 2009년까지도 이 나라에서는 매년 15~20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으로 희생되고 있다.

<손현정 기자>

터키를 위한 기도회

터키는 세계에서 큰 미전도 국가로 남아있는 국가 중 하나다. 한 때 기독교 요새였던 터키는 지금 강력한 회교 전파국이 됐고, 복음의 비율은 정치적 압박과 기독교인들

에 대한 반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권과 터키 축복하고 영적 회복 꾀하는 ‘2010 에베소 연합중보기도회’가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터키 에베소에서 열린다.

문의: 626-398-2131 <이태근 기자>

▶1면에 이어

그러나 모건 목사의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 그는 “과학 기술은 죄에 악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며 “오리려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될 때 더 큰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과학 기술은 오늘날을 살아가

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움 것”이라는 생각이다.

신교학자 에드 스텡처 박사는 모건 목사의 견해에 동의를 표했다. “3D 기술이 교회에서 활용되는 건 자연스러운 발전”이라는 것이다. 그는 “3D는 새로운 도구나 접근이 아니다”며 “이미 2D 기술

이 교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여기에서 3D 기술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것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D든 3D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기에 교회들이 얼마나 3D 기술을 반길 것인지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에버그

린 커뮤니티 교회의 밤 하이엇 목사는 “교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각 장소에 설교 사역자를 둘 수도 있다”며 “영상 예배는 지나치게 한 명의 설교자의 재능과 능력에만 의존하며, 또 그것을 교회 확장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손현정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학 광고국장 : 이안규
지사방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번호 : (213) 739-0408
주소 :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권이 부당하게 부결시킴,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권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권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패밀리 컴맹탈출!

가장 쉽게 배우는 컴퓨터!

망설이면 늦습니다.

컴맹탈출의 네비게이션만 믿으세요!

시판가격 \$220 → 할인가격 \$150

※ CD 한 프로그램만 이수하셔도 6개월분의 학원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컴퓨터를 배우시는 분은 많은데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나이들었다고 옛그제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무시당하는 기분... 젊은 사람은 그런것도 모르니 한심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컴맹탈출이 안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까지 시중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눈높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우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왕초보의 시각으로 만든 컴맹탈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빨리 갈 수도 늦게 갈 수도 있어서 아주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잘해서 컴맹탈출이 아니라 프로그램 방법대로 따라하면 저절로 컴맹탈출!! 자동차 운전은 처음하실때는 누구든지 긴장하다가 어느정도 익숙해지면 재미있듯이, 컴맹일 때는 컴퓨터가 무섭지요. 어디를 갈 때 네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대로 가지만 하면 목적지가 나오듯이 내가 다 기억하고 잘 할려고 하면 나만 힘이 듭니다. 그냥 맡겨주고 따라가면 됩니다.

- 마우스 사용법에서 홈페이지 제작까지 완전 마스터
- CD롬에 넣기만 하면 자동 실행되어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컴맹이 탈출됩니다.”
- 이 프로그램은 가르치는 사람의 눈 높이가 아닌 배우는 사람의 눈높이로 만들어졌습니다.
- 인터넷 왕초보에서부터 인터넷 박사 과정까지 반드시 배우고 마스터 해야하는 중요한 프로그램 10가지를 엄선한 것입니다.
- 학원갈 필요도, 교재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 당신의 'IT 내공' 을 체크해 보세요

IT내공 측정 20개 문항을 체크해 보세요. '그렇다'고 답한 문항이 0~2개이면 하수, 3~12개면 중수, 13~16개이면 고수, 17개이상이면 달인으로 분류됩니다.

1. PC를 통한 정보검색과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하다.
2. 이메일을 받고 쓸 수 있다.
3. 온라인 쇼핑물이나 주식거래를 자주 활용한다.
4. 블로그, 사이트, 카페 등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한다.
5.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할 수 있다.
6. 이메일을 통해 RSS피드를 받아 보고 있다.
7. 트위터,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등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이용중이다.
8. 휴대전화로 웹검색을 할 수 있다.
9. 휴대기기(스마트폰 등)로 이메일을 확인한다.
10.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전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
11.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휴대기기에서 사용한다.
12.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본 적이 있다.
13. 휴대전화로 지도, 목적지까지의 경로, 대중교통 정보 등을 검색 할 수 있다.
14. 스카이프, 구글 보이스 등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15. 와이파이가, 3G, 와이브로의 차이를 구분 할 수 있다.
16. 웹스케줄러나 동기화 프로그램으로 일정을 관리한다.
17. 스마트폰을 해킹하거나 OS교체를 시도해 본 적이 있다.
18. 구글독스나 웨이브 등의 웹협업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
19. 2-3종 이상의 스마트폰과 e북 등 휴대기기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20. 휴대전화에 추가돼야 할 기능과 서비스들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

구입처 1-800-310-1089 자세한 정보는 www.mystanton.com

■ 강신권 목사 'The Bible Expo 2010' 국제자문위원장 위촉

세계 최대 규모 '바이블 엑스포' 2010 개최된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최대의 기독교 문화 축제 ‘더 바이블 엑스포 2010’(The Bible Expo 2010)이 인천에서 펼쳐집니다. 과거의 역사적 성과와 현재의 최첨단 기술이 만나 성경 66권의 말씀을 생생하게 재현할 것입니다.”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코헨신학대학교 설립 총장)는 최근 한국 인천에서 더 바이블 엑스포 2010(이하 바이블 엑스포) 국제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또한 인천시로부터 국제교문으로 위촉돼 인천시 홍보대사 역할도 맡게 됐다.

강신권 목사는 “올해 개최될 바이블 엑스포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최대의 기독교 문화 축제”라며 “세계 기독교의 성지가 한국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바이블 엑스포 2010 발대식 및 제작 발표회가 오는 3월 16일 한국 63빌딩에서 개최된다. 아래는 강

신권 목사와의 인터뷰 전문.

-더 바이블 엑스포 2010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인천시에서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개최되며 전체 4만평 규모로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의 내용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재현할 것이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최고, 최대의 기독교 역사, 문화 축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바이블 엑스포 내에는 ‘천지창조’, ‘노아의 방주’ 등 전체 성경을 바탕으로 한 108개의 기획 테마로 구성된다. 이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불가능했던 것을 한국 인천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바이블 엑스포 2010이 개최된 계기가 무엇인가

한국 더 바이블 엑스포 위원회 측에서 이전에 중국에서 소규모로 바이블 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중국에서 개최된 바이블 엑스포가 중국인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어 이로부터 더 대규모 바이블 엑스포 개최

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된 것이다.

-바이블 엑스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 목적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바른 기독교 문화 정착이다. 둘째는 120년 전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진 기독교 복음의 빛을 감는다는 것이다. 또한 내부적인 의미로는 이제 한국이 세계 기독교계를 섬기며 역사를 이끌어간다는데 큰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로는 바이블 엑스포를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엑스포의 전체 기획 테마는 바로 ‘빛과 평화’다. 전체 108개 기획테마관이 빛과 평화를 모토로 제작된다. 이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다.

-바이블 엑스포 2010 국제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소감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러한 기회를 준 더 바이



캘리포니아 로미타(Lomita)지역에 위치한 강신권 목사의 집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 목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경책을 내보이며 바이블 엑스포에 미주 한인들을 초청한다고 말했다.

블 엑스포 2010 조직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는 세계 최초의 이벤트에 국제자

문위원장으로 위촉돼 너무나 큰 짐을 진 기분이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이스라엘 고고학, 구약학, 신약학 등 전문 분야에 출

현한 분들이 많은데 국제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이며 또 한편으로 너무 큰 사명이기에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본인이 국제자문위원장이지만 세계적으로 훌륭한 이스라엘 히브리 학자들, 미국과 한인 구약학, 신약학 학자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또한 그들이 더 바이블 엑스포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본인이 다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문화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모든 이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낼 수 있는 기독교 문화 개발을 위한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있다. 더 바이블 엑스포 2010에서 펼쳐질 거대한 역사적 기독교 문화의 파노라마가 6개월간 한국에서 펼쳐질 예정인데 향후에는 세계인의 기독교 축제로 손꼽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지재일 기자)



김정화 사모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김정화 사모, 故 김연철 목사 1주년 추모 맞아 심경 밝혀

3월 4일은 김정화 사모에게 특별한 날이다. 목회자인 남편을 떠나 남 품으로 떠나보낸 날이기도 하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은 날이기도 하다.

김 사모의 남편 고 김연철 목사

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의해 하나님 품으로 갔다. 김 목사를 떠난 보낸 일은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었다. 동문들과 목회자들에게도 실시한 주의 일꾼을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낸 가슴 아픈 일이었다.

김 목사를 보내는 것도 잠시. 당

시 아들 김은배 씨는 살인자로 몰려 형무소생활을 면치 못할지도 모른다는 여론이 고조됐고, 김 사모는 그저 하나님 앞에 앞도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기도의 응답인 듯 아들은 중단됐던 학업을 치료를 받으며 계속

할 수 있게됐다.

“남편을 보내고 아들 마저 재판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 대학교 1학년에서 중단됐던 아들의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재판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늘 앞서 일하십니다”

“부지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아들에게 김 사모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린 것은 지난해 12월, “죄책감에 시달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 상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욱 알고 치료를 통해 더욱 멋진 아들이 되길 소망하고 있어요.” (이태근 기자)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GST Language Center
갈릴리 신학대학
유학생을 **장학생**으로 초대
가장 빨리 영어배우실분
학위전학, 신분변경무로
학생소개자특전!
목회자 추천
학비 선착순 파격할인 \$140/월
Power English 무료칭강 기회
I-20 자체발행, 석박사 학위
특별장학금, 별도사례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550.7377** 24시간

여성건강선교회
Samuel Yu 선교사
Tel. 213.999.2696
3200 Wilshire Blvd #1750 (south tower)
10 years feeding 1 million people.

협찬: 한국관광공사 특별후원: 기독일보 아시안항공

명품 건강검진

대한민국 일등 병원 '아산병원' 미주 일등 기독신문 '기독일보' 와 함께 하는 미주 일등 관광 'LA아주관광' 의 명품의료관광!

- 교민들을 위한 프리미엄 VIP의료서비스(미주교민 특별우대)
- 한국내 1위, 서울아산병원
- '2009 글로벌 고객만족1위' 2년 연속 수상한 서울아산병원
- 국내 의료계 최초 암센터 부문, 대한민국 명품 선정

총 4회 출발 : 4월 1일(4월 3일 검진), 4월 15일(4월 17일 검진), 5월 6일(5월 8일 검진), 5월 27일(5월 29일 검진)
(고객이 원하시면 미리 출발해서서 검진일에 합류 가능 검진 결과후,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 자유롭게 선택 가능)

기독일보-안심 프로그램 남/여 \$3,499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울아산병원 안심프로그램

혜택:
기독일보 고객께만 주어지는 특별 혜택
1. 기독일보 고객만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프로그램(머리부터 발끝까지-안심프로그램)
2. 검진 다음날 서울 시내투어 무료 제공
미주교민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특별 혜택
1.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검진 결과를 검진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음
2. 이상소견 발생시 2~3일내로 전문의와의 면담이 주선됩니다(통상 1~3개월 소요)

대표전화 (213)388-4000
서울 02-522-8686
1-800-933-3011

서울아산병원
아산병원 LA센터: 213-387-9090

웃음으로 산故 김연철 목사의 삶을 기억하시길



故 김연철 목사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목회자들이 로즈힐에서 추모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태근 기자

故 김연철 목사 1주년 추모예배 드려져

“하나님 아버지 웃음을 주며 산故 김연철 목사의 삶을 기억하시고 사모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못다한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최학량 목사)

故 김연철 목사를 추모하는 1주년 추모예배가 4일 오전 11시 로즈힐 공원묘지에서 드려

졌다. 이날 예배에는 뜻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한 고 김 목사를 애도하고자 하는 이들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고인의 묘 앞에 모여든 조문객들은 조재형 목사의 인도에 따라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 참여자들 중에는 김 목사의 생전 삶을 잘 아는 듯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으며, 예배는 시종일관 엄숙

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40절까지를 본문으로 전 KAPC 총회장 김상덕 목사가 전했다. 김 목사는 “오라비의 죽음으로 슬픔에 젖은 마리아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은 나중이 아니라 지

금이었다”며 “누구나 삶을 살다 죽음이라는 벽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죽음을 씩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받는 또 다른 순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며, 고인을 하나님 품으로 보낸 아픔이 있지만 우리들도 이 길을 갈 것이기에 이를 계기로 더 하나님께 다가가길 바란다”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고 김 목사의 아내인 김정화 사모가 김 목사를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낸 후인 1년간의 삶에 대해 전했다. 김 사모는 “정신 치료를 받는 아들을 병원에 보내고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날마다 전화 주셔서 기도제목을 묻고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설 수 있었다”며 “아들의 치료에 힘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열심히 살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이날 예배는 총신대 남가주총동문회 회장 윤성원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태근 기자〉

인디오 어린이를 위한 크리스천 학교 건립

소중한사람들, 학교 오픈식 가져

소중한사람들(김수철 목사)이 지난 5일 멕시코 엔세나다에 위치한 크리스천 학교 개교식을 가졌다.

소중한사람들은 농장에서 일하는 인디오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거주지 감보에 갇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디오 어린이들을 위해 크리스천 학교 설립을 계획하게 됐으며, 한국의 한 후원자로부터 후원을 받아 학교를 건립하게 됐다.

소중한사람들 김수철 목사는 “엔세나다 오벤에돔의집 선교센터(정일교선교사)에 학교 건물을 세우고 금번에 오픈식을 가졌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일대일 결연자를 모집하여 학교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크리스천 학교가 건립된 멕시코의 인구는 1억 3천명이며 그중 인디오는 37%를 차지한다.

문의: 213-507-4095

〈이태근 기자〉



소중한사람들이 멕시코 인디오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천 학교를 건립하고 개교식을 가졌다. ©소중한사람들

“상처가 덧나기 쉬운 이들 보다 덜 상처 받은 이들 부터”

임마누엘선교교회서 목회 시작한 류 목사 심경 전해



류종길 목사

“상처 받은 이들보다 덜 상처 받은 이들부터 돌본다”는 임마누엘선교교회 2대 담임목사로 청빙 받은 류종길 목사의 목회 철학이다. 류 목사가 이러한 목회철학을 가지게 된 것은 임마누엘선교교회에서 교환목회 하며 경험한 이민교회와 2대 담임목사로 청빙 받으면서다.

류 목사의 청빙은 본인도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약 11개월간의 교환목회를 끝내고 김해제일교회로 돌아간 류 목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임마누엘선교교회에서의 청빙서였다. “임마누엘선교교회 1대 담임목사 안용식 목사가 사임하면서 교회로 청빙됐습니다. 17년동안 함께 했던 안 목사가 다른 교회로 가니 교인들이

받은 상처가 컸고 그래서 잘못 쓴 대면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상처 받은 이들보다 덜 상처 받은 이들부터 돌보아줬다는 목회 철학을 갖게 됐습니다. 상처 받은 이들은 시간을 두고 심방 등을 통해 상처를 치료하고자 합니다”

류 목사가 교인들의 환대 후 본격적으로 설교하며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7일, 교환목회를 통해 낯설지 않은 강단과 교인들 앞에 또 다시 서게 된 류 목사는 이민교회 목회를 해본 경험자다. “1990년대 샌프란시스코에서 2년 남짓 목회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목회를 했던 지역은 다르지만 영혼을 돌본다는 똑같은 목회 방향이 있기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내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

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쉽 없이 일 할 수 있죠”

같은 교회 교환목회자가 아니라 목사로서 강단에 서게 된 류 목사의 심정은 어떨까. 류 목사는 교환목회 당시를 회상하며 교인들에게 잘못 했던 일들을 회개한 듯 교인들을 위한 목회를 위해 결연한 의지 보였다.

“사실 지난해 교환목회 때는 안식년이고 해서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지 못해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을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된 심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의 양식을 먹이며 교인들을 돌보고 교회 부흥을 위해 사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진실한 목회자가 되고자 합니다”(웃음)

끝으로 류 목사는 김해제일교회로 청빙 받은 안 목사를 위한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안 목사가 김해제일교회에서 상처 받은 교인들을 잘 싸매주고 목회에서 승리 하길 바랍니다. 안 목사가 잘 되어야 저도 좋고, 그래야 다시 만날 때 웃으며 만날 수 있으니까요. 곧 있을 취임 예배 때 큰 화환도 보낼 겁니다”

〈이태근 기자〉

유엔 글로벌 디베이트팀 겨울 학기 세계 1위

뉴 호프 아카데미 소속, 모의 유엔총회 참석 기대

세계 청소년 모의 유엔총회가 오는 7월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남가주 La Crescenta 소재, 뉴 호프 아카데미소속 유엔 글로벌 디베이트 프로젝트팀이 지난 겨울학기 프로젝트에서 전 세계 1위에 올랐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봄 학기 프로젝트를 6월 1일까지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유엔의 빈곤퇴치와 기후변화대처 노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모의 유엔총회에 참석 여부가 결정된다.

한인 고등학생 12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은 지난 겨울학기 기후 변화에 대한 리서치와 환경보존과 재활용의 생활화 홍보,

유엔 파운데이션에 블로그를 개설해 리서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게재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지역 사회 리더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을 초청, 디베이트 및 연구결과를 발표해 지역 커뮤니티에 환경 관련 이슈들을 홍보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UN 정책 개발에 반영하게 된다.

유엔 파운데이션(UN Foundation)은 전 세계 90개국 1,200개 디베이트팀들의 결과를 종합, 최우수 팀을 미국에서 두 팀, 다른 해외 국가에서 두 팀을 오는 6월 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지재일 기자〉

조후연 박사가 인도하는

건강과 치료 大수양회

이곳에 오시면

- 1 은혜가 풍성해지고
- 2 잘 먹고(영양소 골고루)
- 3 열심히 운동하고(실내, 실외)
- 4 푹 쉬고(안식, 온천요법)
- 5 뜨겁게 사랑한다(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 1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 2 기적을 체험하고
- 3 건강이 회복되고
- 4 활력이 넘치고
- 5 하늘을 나는 듯한 체험을 한다



강사: 조후연 목사/박사
자연치유 의학박사(명박)
목회학/목회신학박사
오아시스 치료 선교회 회장
아기천사 후원회 대표
크리스천의 바른 먹거리 저자

특별 혜택

- DNA 파동검사를 무료! (검사비 기본이 200\$)
- 크리스천의 바른 먹거리 저자 싸인 기증
- 특허 또는 최고의 건강기능식품 제공, 영양제, 다이어트
- 개인별 식이요법
- 라이드 하신분 2회 무료 온천
- 온천사랑 건강 동호회 가입
- 도네이션, 기부금 세금 공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것이다

믿음·소망·사랑
건강·풍요·선교

일 시 : 2010년 4월11일(주일) 오후4시~4월15일(목요일) 오후2시 (4박5일)
장 소 : 팜스 온천장(Desert palm spa Motel)
67485 Hacienda Ave, Desert Hot Springs CA 92240 (760-329-4443)
※가는길 : L.A에서 10번 동쪽으로 약 90~100마일 > palm Dr로 나가 좌회전 > Hacienda에서 우회전
회 비 : 4인실 \$470, 2인실 \$550
준비물 : 성경, 찬송, 필기도구, 수영복, 운동복, 세면도구
참가자 : 30명 선착순, 회비 접수순

DNA 파동 검사

머리털 1-3개로 인체 모두의 건강과 질병상태 그리고 마음까지 검사하는 최첨단 과학기법이다. 기계는 거짓말도 못하고 요령도 피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알려준다. 또 자연치유법을 제공해준다. 등록자는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비영리 법인 오아시스 치료 선교회
The Oasis Healing Mission

213 W. Providencia Ave, Burbank CA 91502
818. 815. 9627 818. 926. 4642

송금: The Oasis Healing Mission
주소: 옆 주소로 기입하세요.
※은행 Check로 송금해 주시는 순서대로 접수 가능합니다.

“양화진은 언제나 열려있다”... 또다시 ‘사유화’ 논란

한동안 잠잠한 듯했던 ‘양화진 사유화’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그간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사장 강병훈 목사, 이하 협의회)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담임 이재철 목사, 이하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예장 통합의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대표회장 이건호)와 서울서노회(노회장 이

지를 3년째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며 “묘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 등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양화진은 1년 36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에게나 묘역의 출입과 참배·순례가 열려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선교사 후손 및 유가족들이 방문하는 경우는 새



2009년 10월 8일 스크랜튼 선교사 서거 100주기를 맞아 양화진을 방문한 스크랜튼 선교사의 후손 등.

청과 △서울 유니온교회 관리 당시 37기의 불법매장 예약, △KBS TV 인터뷰를 통해 양화진에 묻히고 싶다는 원한석 씨의 희망에 대해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협의회 등은 또 “사유화되었다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은 양화진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라며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의 역사를 전하는 양화진 홀이 들어 있는 홍보관 건축을 위해 사용한 40여억을 차치하고라도, 양화진 묘역의 정비와 안내 봉사, 선교기념관 보수, 그리고 양화진문화원의 유지 등을 위해 100주년기념교회는 불과 5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40여억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회 등은 이같은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데 대해 “특정인들이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인정하듯, 양화진은 아름답고 엄숙해졌을 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기준에 결코 뒤쳐지지 않는 성지공원의로서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류재광 기자>

최근 다시금 비판 제기되자 100주년 기념사업협 의회 등 재반박

건호), 마포교구협의회(회장 김석순) 등이 최근 개최한 한 세미나에서 다시금 이 문제가 거론되고, 이에 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측이 재반박에 나섰다. 협의회 측은 2월 16일 국회 귀빈회관에서 원회통 의원 초청 ‘기독교 유적지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입법 청원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인요한 박사(유진행 선교사 후손)와 원한석 박사(언더우드 후손)는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 묘

역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특히 협의회 등은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을 관리하기 시작한 2005년 7월 이후부터 2010년 3월 5일 현재까지 16만 878명의 참배객이 다녀갔다는 자료와, △헬버트 박사 기념사업회의 초청으로 손자 내외를 비롯한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2009년 8월 5일 헬버트 서거 60주기 추모식(2009년 8월 5일)을 가졌고, △스�크랜튼 100주기를 맞아 이화여대 와 상동·아현·동대문 교회의 초

청으로 스크랜튼의 고손자를 비롯한 유족들의 추모식을 2009년 10월 8일에 가졌으며, △100여기가 넘는 미군 및 관련 유가족 묘역을 미8군부사령관이 2009년 11월 6일에 참배하였고, △한미 친선연합회가 2009년 9월 21-10월 1일까지 대대적으로 미군 묘역을 정비하였으며, △허용석 관세청장은 2009년 6월 1일 관세청의 초석을 놓은 헬리팩스 등의 실명판을 설치하고 묘역을 참배했다는 기록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협의회 등은 통합측 한인사가 신문에 게재한 칼럼 내용 중 “특정 교회가 이 묘역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유적지가 합법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사유화되거나 훼손돼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등은 그 근거로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의 역사를 왜곡하고 묘원을 불법적으로 훼손했다는 고소 및 고발이 대어섯 차례나 있었으나 모두 불기소 및

각하되면서 사실 무근임이 드러난 것과, 양화진의 합법적 소유권이 협의회에 있다는 사실은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했던 2007년 9월 3일의 마포구청 감사에서도 입증됐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을 관리하기 시작한 2005년 7월 이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현행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양화진에 예비선 선교사의 손녀를 묻고 싶어 하는 연세대학교의 지속적인 요

“총신 세계화 위해 美 6개 신학대학 벤치마킹”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신학원이 5일 전임이사장 김삼봉 목사의 이임과 신임이사장 김영우 목사의 취임 예배를 거행했다. 이 예배에는 합동총회 임원 및 교계 인사들과 교수, 교직원, 학생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부이사장 김경원 목사의 사회로

찬받은 것처럼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신숙, 적극, 창의적 자세로 일하기 바란다”며 “한국교회가 신학적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때 109년을 지켜온 우리의 정통보수신학을 잘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이사장이 되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인사 순서에서 이임이사

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총신이 총회의 직영 신학교 기관임을 기억하고 정관과 규정에 맞추어 주어진 소임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영우 이사장은 “총신을 개혁신학의 요람으로 굳건히 지키고, 글로벌 학교로 만들어 세계에

사, 서기행 목사, 홍정이 목사의 격려사, 증경총회장 김준규 목사, 길자연 목사와 부총회장 박정하 장로의 축사, 시인 박재천 목사의 축시 낭독, 총신대학교 총장 정일웅 목사의 인사가 이어졌다. 정 총장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며 “총신이 안정과 평화 속에서 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신학원 이사장 이취임 예배에서 신임 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이사장 이취임예배

진행된 이취임예배는 이사 백남선 목사의 기도, 회계 이경원 목사의 성경봉독, 총신대 학생들의 찬양, 총회장 서정배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서정배 총회장은 말씀을 통해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이 주님께 칭

장 김삼봉 목사는 학생들에게 “순금 같은 참 신앙을 지키며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것”과 “총신대학교가 세계적 학교가 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이어 취임이사장 김영우 목사는 “제16대 이사장에 취임하게 된 것

우리의 신학을 소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올해 중으로 미국의 6개 신학대학을 방문, 시찰하여 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취임패 및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증경총회장 김동권 목

전 기회를 맞이한 것”에 대한 감사과 기쁨의 소감을 밝혔다. 이후 운영이사장 황원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날 취임한 김영우 목사는 2008년 11월 이후 14개월의 공백을 깨고 지난 1월 15일 총신대학교 재

단 이사장에 선출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총신대 신대원 및 미국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졸업 후 명지대학교 교교회 담임목사, 충청노회장, 기독교신문 주필을 역임했으며, 현재 선

천공동체 대표, 한국개혁주의신학회 대표이사, 공동체비전고등학교 이사장, 서천읍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류재광 기자>

주택 차압/퇴거 중단

융자 조정 (후불)

- 세컨홀 및 상업용 건물도 가능
- 2차 융자 금액 삭감 (18만불에서 16만불 탕감받았음)
- 다른 곳에서 실패하신 분 환영
- Option Arm 가진 분들, 30년 고정으로 바꿔드립니다

- NOD, NOT 받으신 분
- 융자 조정, 숯세일 실패해서 차압 당하게 된 분
- 차압 (Foreclosure)이 이미 끝나고 Eviction (퇴거 명령) 기다리는 분

즉각 차압 중단

즉각 퇴거 중단

NO...NO Short Sale : 저희는 숯세일을 절대 권유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켜드리는데만 목적을 두고 일합니다.

WP Lending Inc

Paul Lee

3400 W. 6th st., #200, LA, CA 90020 (6가와 카탈리나, MBC 건물)

213.248.9297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3월 15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셔 + 웨스턴)

“한국적 선교신학과 선교모델 개발 시급”

성경암송, 새벽기도, 통성기도, 성미(誠米) 운동, 날연보(日捐補) 등... 이들 문화의 공통점은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전후한 초기 한국교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한 토착 기독교 문화라는 점이다. 서구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적용한 자전, 자립, 자치의 네비우스 선교정책은 이 같은 한국적 토착 신앙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한국교회의 정착과 성장에 기여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서구 선교신학과 서구 선교사들의 문화 우월주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적 선교신학과 선교모델을 하루 속히 개발해 선교현장에서 활용하고 세계교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해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세계선교기여 심포지엄’에는 역사신학자, 선교신학자, 선교단체 대표, 간사 등 50여 명이 모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난 1세대 기독교인들의

토착적 기독교 신앙과 문화를 살펴 보고 한국적 선교신학과 선교모델 개발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행사는 한국전방개척선교네트워크(KFMN)가 주최했다.

서정민 연세대 교수는 이날 “초기 한국 기독교는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에 수용되면서 신앙과 애국, 구국의 목표가 일치한 민족교회로 자리잡아갔다”며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수난을 거쳐 이승만 정부에 의해 우대를 받았지만 양적 성장과 개교회 중심주의로 흐르고, 세상적 가치관에 휩쓸리며 예산자적 영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토착 기독교 문화 연구해 세계교회와 나눠야



최근 신학자, 선교단체 실무자들이 모여 한국적 선교신학과 선교모델 개발을 위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한정국 목사(KWMA 사무총장), 신경규 부교수(고신대), 안교성 조교수(장신대) ©이지희 기자

그는 한국 기독교가 양적 성장에 걸맞은 도덕성을 회복하고 사회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한국교회사에서 반복된 선교적 실수를 극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선교 방법론과 신학을 논의하여 세계교회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현혜 이화여대 교수도 논찬에서 “한국은 세계 2위 선교사 파송국으로서 이제 제대로 된 한국적 선교신학을 확립해야 할 때”라며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놓고 끝까지 씨름하면서 한국적 선교신학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이덕주 감신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개회 한국 기독교 선교 과정에서 나타난 신학적 토착화 노력과 토착 기독교 문화를 소개했다. 그는 만주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 무교절을 ‘누룩 금하는 절’, 유월절을 ‘넘년 절’ 등의 어휘로 표현한 것이나 일본의 이수정이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생소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등잔과 빛’, ‘종과 망치’ 등을 들어 설명한 것은 말씀과 신앙의 토

착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경회와 성경암송은 한국 경전문화에 바탕을 둔 것이며 평양대부흥운동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새벽기도, 통성기도, 성미, 날연보 등은 유교, 불교, 도교 등의 토착전통종교의 문화적 요소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여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처럼 초기 한국 기독교는 주체적인 복음 수용과 해석, 그 과정에서 창출된 토착적 신앙 및 종교문화를 바탕으로 서구 기독교나 기존 토착종교와는 구분되는 제3의 전통을 가진 토착 기독교로 뿌리내렸다”며 한국적 토착 기독교 문화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인수 숭의여대 강사는 논찬에서 “오늘날 교회가 토착화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세계 기독교 전통과 단절된 배타적 지역주의나 국수주의, 정체성이 모호한 혼합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회를 토착화 할 때 복음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복음과 문화를 구분하여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영 기자〉

중국의 기독교 핍박이 한국 선교에 미친 영향

중국 선교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였던 의화단(義和團) 운동이 한국 개신교 선교 현장에 미친

서 벌어졌던 두 번의 커다란 기독교 배척운동 가운데 하나였으며, 당시 많은 선교사들과 중국 기독교인들

때문에 넓은 지역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같은 일들을 저질렀다. 에스더처럼 선교사와 기독교

고 이 소식을 라틴어로 은밀히 서울에 알리는 기지를 발휘해 사전에 발각됐다.

1백년 전, 한국 내 모든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할 뻔했다

영향이 최초로 연구 발표됐다. 6일 서울 신문로 새문안교회(담임 이수영 목사)에서 열린 제282회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주제발표한 이해원 씨(연세대 석박사통합과정)는 “한국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과거부터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곤 했다”며 “의화단의 초기 목표는 모든 기독교적인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으므로, 중국 선교현장에서 이뤄지던 기독교에 대한 광범위하고 폭력적인 공격 소식은 한국 선교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중국 인접한 북부 지역, 여러 박해사건 발생 1899년부터 1900년까지 중국 북동·북서 지역에서 일어난 의화단 운동은 ‘부청멸양(扶清滅洋)’을 내세운 폭력적인 기독교 배척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중국 근대 역사에

(가톨릭·개신교 포함)이 살해되거나 약탈을 당했다. 대략 4만명이 넘는 가톨릭·개신교인들이 이 운동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당시 한국에서 의화단 운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세력은 자생 종교였던 동학(東學)도들이었다. 이들 중 일부가 의화단을 따르고 모방하면서 한국 기독교 사회도 크고 작은 소요가 일어났으며, 한국 내 선교사와 서양인들은 의화단 운동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것을 염려했다.

실제로 중국과 인접한 북부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동학도와 지방관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경남 밀양과 대구 등지에서도 이같은 무리들이 출몰해 선교사와 서양인들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동학도들은 교회당을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의 소유물을 강탈했는데, 이들은 거대한 종교 단체였기

인 모두 ‘도륙’당할 위기 놓이기도 했다. 특히 의화단 운동은 일명 ‘도륙비지사건(屠戮秘指)’을 부른 원인이 됐다. 이는 1900년 겨울 진리파 세력인 내장원경 이용익과 평리원 재판장 김영준이 반미 감정에 휩싸여 황제의 밀명이라며 몇날 며칠에 걸쳐서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을 도륙하라는 밀서를 각지에 배포한 사건으로, 당시 북장로교 해외선교본부에까지 보고될 정도로 선교사 사회를 긴장하게 만든 동시에 구한말 발생한 대표적 박해사건이었다.

이해원 씨는 “나중에 이용익과 김영준의 이름이 밀서에 들어간 것은 모함이라고 결론내려졌다”며 “즉 도륙비지사건은 단순히 반미 감정에 휩싸인 두 명의 고관인 꾸민 개인적인 음모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행히 해주를 여행 중이던 언더우드(H. G. Underwood) 선교사가 우연히 밀서를 손에 넣

이해원 씨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당시 중국에서 일어난 의화단 운동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며 “평양 및 북쪽 지방에서 급격히 늘어나던 동학도들이 의화단 영향을 받아 한국의 모든 선교사(혹은 외국인)와 기독교인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화단의 영향을 받은 반서양·반기독교 정신에서 배태된 소요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 씨는 “밀지 말미에 덧붙인 ‘모든 전보 케이블을 파괴하라’는 명령만 봐도 의화단을 모방한 시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며 “의화단은 가는 곳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중국의 기를 막고 있다며 제일 먼저 전보 케이블과 철도를 파괴했고, 이는 체계적인 군사전략에 의한 것이 아닌 의화단의 대표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다.

국가간 기독교 관계사 연구 필요하다

의화단 운동은 미국과 캐나다 선교본부들 아연실색케 했고, 사건이 마무리된 1900년 이후 선교 정책에



역사학회에서는 이 씨의 발표 외에도 송현강(한남대) 씨가 한국 기독교 유적지 현황과 특성을 발표했다. ©이대용 기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기독교 교육사업 등 교파간 연합사업이 증대했고, 현지 선교사들 사이에 대두됐던 ‘선교 에큐메니즘’이 의화단 운동 이후 선교 정책과 접합되면서 선교 방법 및 정책이 다변화됐다. 또 그간 선교사들과 제국주의의 밀접했던 선교 방식에 대한 근원적 회의가 일면서 새로운 선교지에 들어갈 때 선교 접근과 방법론도 달라졌다.

이해원 씨는 “이런 선교 정책적 변화는 한국 선교 현장과 무관할 수 없었다”며 “한국에서도 의화단 여파로 동학에 의해 기독교 및 서양인 배척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특히 ‘도륙비지사건’으로 제물포에서 한 명이 살해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구타·약탈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행히 의화단 운동 여파로 계획됐던 한국의 ‘반외세 기독교 박멸 시도’는 불명예스러운 실패로 끝나버렸고, 이후에는 더 이상 중국에서 감지되는 반기독교적 정서를 한국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이 씨는 “도륙비지사건은 한국 개신교 초기사에서 중요한 박해사건으로 간주되면서도 아직 사건의 전말에 대해 정확히 연구된 것이 없었다”며 “이를 이해하려면 중국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의 관계사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그 배경과 전모가 드러나듯, 국가간 기독교 관계사 연구는 한국 교회사 연구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을 더 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대용 기자〉

기독교일보와 아주관광이 함께 하는

2000년전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스라엘

6박 7일

~~\$2800~~ → **\$2450**

○ 방문지 : 텔아비브, 예루살렘, 마사다, 쿨란, 갈릴리, 가버나움, 베들레헴, 가이사랴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

10박 11일

~~\$3300~~ → **\$2800**

○ 방문지 : 카이로, 시내산, 타바, 에일랏트, 페트라, 암만, 느보산, 예루살렘, 사해, 쿨란, 텔아비브, 옴바, 갈릴리, 가버나움

기독교일보, 아주관광의 협업 프로모션에 의한 특별가격!

1. INCLUDE

1) 관광지 입장료: 베드로 암굴교회, 바울의 우물, 괴레메, 데린쿠유, 비시디아 안디옥, 라오디게아, 히에라 폴리스, 필라델피아, 사데, 두아디라, 에페소, 성 요한, 버가모, 트로이, 성 소피아, 보스포러스 정구선, 톨카프

2) 45인승 대형차량

3) 현지식 9회 + 한식 2회

4) 한국인과 현지인 가이드 국내선 항공료(이스탄불/아다나)

2. EXCLUDE

1) 각종 TIP(한국인 및 현지인 가이드, 기사, 식당, 호텔 팁 등) + 음료

2) 손님들 국내선 항공료 (이스탄불/아다나)

※ 자세한 일정과 호텔/식사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usajutour.com

Tel. 213-388-4000 Fax. 213-387-1006

3053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아동학대 만연... 아이티의 현실 알아달라

비영리단체 주최 비전트립 통해 지진피해복구 돕는다

지진으로 폐허가 된 아이티를 살리기 위해 아이티 세인트조셉패밀리가 조지아 주를 찾았다. 지난 주말 스와니, 노크로스, 다운타운 총 3군데를 순회 공연한 이 팀은 춤을 통해 아이티 사회의 아동학대, 노예제도 등 현실을 알렸다. 세인트조셉패밀리는 버려진 고아나 탈출해온 노예들을 보살피는 비영리단체로

HTF라고도 불린다. 공연 도중 마야(Maya)라는 한 청년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버려졌다가 노예로 팔려갔던 생활을 회상하면서 간증을 전했다. 그는 "6살 때 시작된 노예 생활은 가장 일찍 일어나서 가장 늦게 잠들었고, 침대는 고사하고 옷을 깔고 자야하는 생활이었다"며 "한 번은 쌀을 사오라고 해서 사왔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 그 이후로 몰래 그 집을 도망쳐나와 길거리를 헤매다가 세인트조셉패밀리를 만나게 됐다"고 했다.

이번 공연은 아프리카 댄스, 드럼 솔로, 농부 댄스, 노예 댄스 등 다양하지만 아이티의 현실상을 보여주는 공연으로 진행됐다. 예를



구두땀이를 하는 소녀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

들어 길거리에서 구두땀이를 하던 어린 소녀에게 구두를 닦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한 청년의 모습이라든지, 노예생활에서 풀려나 자유를 찾는 모습 등을 춤을 통해 그렸다.

아이티 아동권익신장을 위해 2001년 세워진 HTF에 의해 시작된 이번 비전 트립은 설립 25주년을 맞아 미리 계획된 것이었지만, 수익금 전액은 지진피해복구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권나라 기자>

성령께서 주관하신 디아스포라 2세들의 전도행진



전도지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장면

모습을 본 우리 젊은이들은 감격해 울며 간증했다. 이외에도 간증 시간에는 풍성한 전도 결과들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총력전도는 6월 첫주 토요일인 5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ICM은... ICM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디아스포라 전도지도자 훈련을 진행한다.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맨해튼 사역을 한다. 소그룹 전도 사역은 그룹별 학교별로 주중에 계속되고 있다.

이외 ICM은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뉴욕대(NYU)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30분 기도 모임을 진행한다. 이는 학교 부흥을 위한 광장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한편 ICM은 사역의 중심이 2세 젊은이들이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도지 인쇄비용과 선교 사역비의 필요성, 미션 센터를 얻어 디아스포라 젊은이들을 훈련하며 선교 지원으로 키우고자 뜻있는 어른들의 도움과 동역이 절실하여 기도하고 있다. <오상아 기자>

국제도시선교회 16회 뉴욕총력전도

국제도시선교회(이하 ICM / 대표 김호성 목사)가 뉴욕의 모든 영혼들과 뉴욕을 방문하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디아스포라 2세들을 세계선교를 위한 자원으로 일으키고자 뉴욕총력전도 운동을 6일(토) 오전 11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했다.

뉴욕 ICM 미션센터를 꼭 메운 약 150여명의 2세들과 일반회원들은 1부 뉴욕과 세계의 주요 도시를 품는 기도회와 메시지 전달 및 전도 훈련과 실습 이후 뉴욕의 길로 나가 3명이 1팀이 돼 3000여명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다. 일명 미션필드 사역이다. 그리고 센터로 돌아와 간증과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ICM 관계자는 "8시간 동안의 뉴욕총력전도를 통해 우리 한인 2세들의 미국안에서의 정체성과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확인했다. 또한 이날 약 3,000여 명이 복음을 듣고 주요 길 모퉁이 마다 다양한 피부의 사람들이 영접기도를 따라하며 눈물을 흘리며 집 근처의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도 약속했다. 또한 타임스퀘어 광장 중심가에서는 모슬렘 청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KAPC 뉴욕동노회 제 66회 정기노회

노회장에 장기수 목사. 부노회장 박희근 목사

KAPC 뉴욕동노회 제 66회 정기노회가 9일 오전 10시부터 뉴저지에 위치한 아가페장로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임원개선이 진행돼 노회장은 장기수 목사. 부노회장은 박희

근 목사. 서기는 조성득 목사. 부서기는 오요셉 목사. 회록서기는 최은진 목사. 부회록서기는 허민수 목사. 회계는 박정수 장로. 부회계는 박성윤 장로가 맡게 됐다.

노회장을 맡은 장기수牧사는 "

성경적인 리더십은 섬기는 것이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 생각하고 저에게 맡겨주신 1년간 기도하며 섬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은 뉴저지 소재 생수의 강 교회(담임 이상만 목사), 한샘교회(담임 오상권 목사) 설립 청원건이 허락됐다.

오상권 목사는 이날 노회 목사로 가입됐다.

<오상아 기자>

지역 한인들을 위한 '러브 투게더'

열린문장로교회와 워싱턴한인봉사센터 공동주최

지역 한인들에게 무료로 의료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러브 투게더(Love Together)' 행사가 3월 6일 열린문장로교회(담임 김용훈 목사)에서 열렸다.

워싱턴한인봉사센터(이사장 해롤드 변)와 열린문장로교회 지역사회 봉사팀(팀장 안성철 집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비영리단체가 가진 노하우와 한인교회 성도들의 섬김, 그리고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인들을 돕자는 취지로 열렸다.

행사를 담당한 지역사회봉사팀의 안성철 팀장은 "열린문장로교회가 평소에도 커뮤니티를 위해 말없이 봉사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워싱턴한인봉사센터와 협력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어 기쁘다"며 "특히 요즘같이 한인들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진행되어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봉사센터의 조지영 디렉터(총무 대행)는 "법률, 의료 봉사 외에도 아태법률센터의 협력을 얻어 참석자들에게 각종 이민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며 "봉사센터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2010년 센서스를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부스도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해롤드 변 이사장은 "미주 한인 사회가 권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빠짐 없이

센서스에 참여해야 한다"며 "미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센서스 자료를 근거로 하는 만큼 이번 기회가 한인들의 실상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한인들은 내과, 소아과, 척추신경, 한방, 유방암 등 의료 검진과 주택, 유산, 시민권 등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으며 30여 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순조로운 진행을 도왔다. 전문가로는 이병민(소아과), 조혜진(가정의학), 박공석(척추신경), 여창규(순환경?주경삼(치과), 민경준(내과), 석민정?김달수?송동연(한방), 윤유식?김진아?메간 정?김철민 변호사 등이 참여해 상담을 했다. <조요한 기자>



지역 한인들을 위한 '러브 투게더' 행사가 3월 6일 열린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워싱턴 한국일보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PCA-CKC '변화와 도전'을 향해

제13차 총회 열려, 회장에 제석호 목사

제13차 PCA-CKC 총회 및 수련회가 미 전역에 흩어져 있는 PCA(미국장로회) 소속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달라스 주의교회(담임 서정수 목사)에서 열렸다. 총회에 참석한 차용호 목사(PCA 수도노회 노회장)는 “변화와 도전”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 및 수련회는 특별히 1세대 목회자들과 2세대 목회자들이 자리를 함께 해 강의 및 토론을 벌여 향후 한인교회가 추구

해야 할 방향에 관한 좋은 모델이 됐다”며 “목회에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변화와 도전을 전해 준 귀한 집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3박4일 동안 진행된 이번 대회 선택강의 시간에는 ‘1세대-2세대로의 전환-박형은 목사(달라스 빛나리교회)’, ‘목회자 건강관리-백경선 박사(메트로 재활의학센터원장)’, ‘차세대 교육과 통합 예배-김정오 목사(동부장로교회)’, ‘교회를

위한 법리 강좌-김택용 목사(위싱턴신학교학장, CKC 증경회장)’ 등이 다루어졌다. 또한 저녁 시간엔 특별 말씀 성회가 열려 이원상 목사(현 SEED 선교회 대표, CKC 증경회장)와 LA 세계로교회 노진준 목사(서남노회), 애틀란타 새교회 심수영 목사(동남부노회) 등 1세대와 2세대 목회자들이 세대를 넘는 말씀으로 폭넓은 은혜의 장을 연출했다.

전체 일정 중 셋째 날인 24일 오후 5시 열린 PCA-CKC 제13차 정기총회에서는 신임회장으로 국제공동체교회 제석호 목사를 선출했다. 현장에 따르면, 7개 노회인 서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열린 제13차 PCA-CKC 총회 ©PCA-CKC

북, 중부, 서남, 남부, 동남부, 수도, 동부노회가 돌아가며 회장을 배출하게 돼 있다. 제12차 총회에서는 중부노회의 서정수 목사가 회장으로 선출됐으므로 제13차 총회에서는 공천위원회(위원장 김용 목사)가 다음 노회인 동남부노회로부터

회장 후보로 제석호 목사(국제공동체교회)를 공천했다. 회원들은 무기명 투표로 제석호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제석호 목사는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PCA 소속 한인교회들의 연합에 힘쓰고 PCA 총회와의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고

다음 제14차 총회 및 수련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PCA에는 300여 한인교회들이 7개 노회에 각각 속해 있으며 이번 총회에는 각 지역에서 100여 명의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참석했다. <조요한 기자>

부활절 연합예배 시카고 9개 지역에서 드린다

각 지역별로 예배 장소와 설교자 선정 중

2010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4월 4일 부활주일 새벽 6시 시카고 지역 9개 장소에서 일제히 드려진다. 시카고 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신광해 목사)는 지난해 7개로 나뉘던 지역 구분을 올해는 9개로 더 세분화했으며 각 지역이 예배 장소와 설교자 등을 선정하는 회의를 자체적으로 열고 있다.

먼저 시카고와 노리지의 26개 교회가 참여하는 시카고 지역은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김귀안 목사)가 중심이 되어 지역 교회들에 행사 정보를 홍보하고 있으며 목회자 회의를 소집해 예배 장소와 설교자를 선정하고 있다. 프로스펙트하이츠와 마운트프로스펙트 힐링의 26개 교회가 참여하는 중부 지역은 안디옥교회(곽성룡 목사)가, 글렌뷰, 글렌코, 에반스톤, 노스브룩, 윌멧, 노스필드, 스코키의 28개 교회가 참여하는 중동부 지역은 할렘루아중앙교회(정양배 목사)가, 배링톤, 배링톤 힐스, 호프만스테이트, 샴버그, 아이타스카, 로젤, 엘크그로브, 엘크그로브빌리지, 하노버파크, 엘진, 스트림우드, 헌틀리의 24개 교회가 참여하

는 중서부 지역은 삼버그침례교회(김광섭 목사)가 봉사하고 있다.

데스플레인, 모튼그로브, 나일스, 팍리지의 23개 교회가 참여하는 중남부 지역은 레이크뷰교회(박규완 목사), 롱그로브, 팔레타인, 알링턴하이츠, 버팔로그로브의 26개 교회가 참여하는 중북부 지역은 엑스더스교회(이철원 목사), 플로스모어, 올랜드파크, 팔로스힐스, 틴레이파크, 버릿지, 팔로스하이츠의 13개 교회가 참여하는 남부 지역은 남서부교회(김형길 목사), 비틀렛, 네이퍼빌, 엘름허스트, 로메오빌, 글렌엘런, 워런빌, 윌트, 웨스트몬트의 13개 교회가 참여하는 남서부 지역은 포도원장로교회(양현표 목사), 디어필드, 인디안크리크, 레이포레스트, 리버티빌, 레이주리하, 링컨셔, 버논힐스, 하이랜드파크, 먼탈레인, 그레이스레이크, 린든허스트, 팍시티의 22개 교회가 참여하는 북부지역은 은혜와진리교회(구본진 목사)가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

교협 측은 모든 지역으로부터 예배 장소와 설교자가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전세계 교회 여성들 카메룬 위해 기도

전세계 교회 여성들이 카메룬을 위해 기도하는 2010 세계기도일. 123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예배에 1984년부터 참여해 온 시카고 여성들도 지난 3월 5일 베다니장로교회(시카고), 미드웨스트교회(중부),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북부), 복음장로교회(서부), 남

성들이 하나님께 매일의 양식과 평화를 주심에 감사드리라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는 이 기도문은 기도문을 낭독하는 여성들과 듣는 여성들의 심금을 울렸다.

세계기도일은 전세계 여성들이 매년 기도문을 작성한 국가의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 그들

은 대표적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도문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나눠 읽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최측은 이 기도문을 최대한 많은 교회 여성들이 참여해 읽도록 권하고 있다. 제일연합장로교회에서 열린 시카고 북부지역 예배에서는 30명이 넘는 여성들이 기

이범훈 목사(노스필드장로교회)가 각각 설교와 축도를 맡았다.

한편, 1887년 다윈 제임스 여사(미국장로교 국내선교부 의장)가 당시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정한 데서 유래된 세계기도일은 현재 180개국에서 지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1922년 만국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세계기도일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다. 한국은 1930년 “예수님만 바라보며”, 1963년 “이기는 힘”, 1997년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라는 주제로 기도문도 세번이나 작성한 바 있다. 미주에서는 한인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1979년부터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으며 현재 전 미주 70여개 지역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김준형 기자>

시카고도 5개 지역에서 세계기도일 지킴

부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남부) 등 시카고 5개 지역에서 기도에 함께 했다.

올해의 주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였다. 카메룬 여성들이 직접 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예배는 카메룬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을 나누는 것부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까지 약 2시간이 걸렸다.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카메룬 여

성을 위해 헌금을 모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올해의 예배 헌금은 카메룬 여성들을 위해 쓰여진다.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여성들은 1년간 ‘작은돈헌금’을 모으는데 이 헌금은 지역사회와 선교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시카고 지역의 작은돈헌금은 북한 선교, 전 세계 기아 어린이 돕기, 미국 내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헌금 외에도 세계기도일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여성들이 연합하

도문을 낭독했으며 본 기도문 외의 시작기도, 대표기도, 봉헌기도 등까지 합치면 40여명의 여성들이 식순에 참여했다. 노스필드장로교회, 엑스더스교회, 제일연합장로교회, 중앙장로교회, 주사랑교회, 그레이스교회, 글렌브룩교회, 참길장로교회, 갈보리장로교회, 순복음사랑교회, 헤브론교회, 비전장로교회, 아가페장로교회 등 이 지역에 소재한 다수의 교회들이 참여했고 김광태 목사(제일연합장로교회),



제일연합장로교회에서 열린 세계기도일 예배에서 교회 여성들이 기도문을 낭독하고 있다.

LAX MEDIA (SKC) / SKmax TONER INC

- SKC 설교/찬양 COPY용 CD-R
- Custom Screen Printing Service & Packaging Service
- Taiyo Yuden Blank CD-R판매
- 3UP CD Label 판매
- 각종 case & accessory 판매

Philips License
획득한 정품 CD-Rs.

CD DVD 복사기

- 1Year Warranty & Lifetime Technical Support

SKMAX TONER는 hp brother Canon SAMSUNG EPSON I.F.X.M.A.R.K D.C.I.L

- Powder만 Refill 판매하는 문제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입니다.
- Powder Refill 제품 구매로 프린터 작동 이상이나, 프린팅 용량 부족의 문제점 발생이 없습니다.
- * 100% 품질 보증 !!!, 100% Satisfaction Guaranteed!!!!
- (문제 발생시 100% 교환 및 환불 보증) -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 가격이 싸서 구매했던 Toner 제품의 품질에 불만족 하신분
- 저가 Refill 제품의 프린팅 용량 부족으로 불만족 했던분
- 제품 구매후 After Service에 불만족 했던 분
- 믿을 수 있는 제품 생산 및 공급 회사를 만나지 못했던 분

SKMAX Toner로 연락 주세요.
최대 60%까지 비용 절감 해드립니다.

Hot! Hot! Hot! Special Sale Items!

LAX Media, Inc. (SKC 미주 서부 총판) 944E Pico Blvd. #4 Los Angeles CA 90021
TEL. 213-749-0909, 213-718-3189 email : laxmedia@yahoo.com

GLOBAL VISION BANK

글로벌비전뱅크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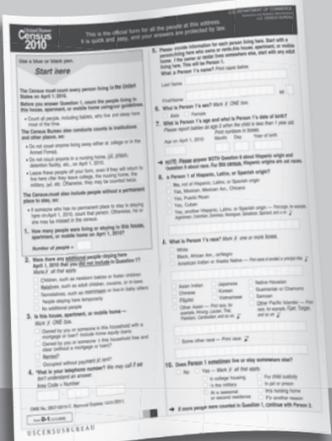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새 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흥 목사

우리의 10분, 교육환경과 취업기회 그리고 커뮤니티를 발전시킵니다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은 10분이면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식으로 커뮤니티의 중대한 서비스와 개발을 위해 해마다 분배되는 정부지원금 4,000억 달러 이상을 우리 커뮤니티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 인구조사 양식을 기입해주시요.

- 인구조사는 법적으로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은 물론,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 귀하의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주시요. 보내지 않으신 분께는 정보수집을 위해 인구조사원이 자택으로 방문합니다.

한국어 지원을 원하시면 1-866-955-2010으로 전화하시거나 2010census.gov로 방문해주시요.

인구조사 양식을 보내주시요.

United States™
**Census
2010**

미국인구조사

우리 손에 있습니다

안인권 칼럼



안인권 목사
새소망교회

1970년대 중반 일본의 모터 업계 대부분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대개 50년 이상 역사와 숙련된 인력을 자랑하는 명문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회사와 싸워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자금력? 참신한 인재? 지명도? 그동안 쌓아올린 기업실적? 그런 것들로는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가모리 사장은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떼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 자신의 시도가

무모한 도전'과도 같았다고 회고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자신감 이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애먼짓한다.',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나?'는 비아냥 소리가 죽기보다 듣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나 뇌물로 인맥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엔 내 함정을 내가 파는 일이 될 것이다. 실적을 올리려고 단기적으로 승부한다면 하루살이 같은 목숨을 연명하느라 구차해질 것이다. 사실 전통 있는 회사라 해도, 내가 근무해보니 대단할 것도 없더라, 크다고 이기는 것 아니라, 돈이 없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한 두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일한다면 큰 조직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나가모리 사장은 우선 모터 하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품질을 갖춘 최고의 모터만 개발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전

통을 가진 회사들을 지금 당장 이길 수 있는 뾰족한 경쟁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터 부문은 이미 몇 년에 걸쳐 개발해 보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볼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것으론 부족하고, 월등히 잘하지 않으면 곤란했습니다. 나가모리 사장은 '월등히 잘하기 위한' 행

동강령을 정해두었습니다.

(배(倍)로 투자하라: 두 배 더 오래 일하라.)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시간을 전부 일에 투자한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다. 24시간 내내 일을 할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사람이라면 잠도 자두어야 하고 목욕도 해야 하고 한 끼에 최소한 10분-20분 정도는 밥 먹는데 시간이 든다. 이것저것 불필요한 시간을 아무리 떼어내도, 적어도 8시간은 최소한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써야하

는 8시간을 빼면 16시간이 남는다. 보통 사람이 8시간을 일한다고 치면 16시간을 일하면 딱 두 배를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마친 나가모리 사장은 창업 직후 자신의 업무 원칙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두 배를 일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길 방법이 아무것도 없

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그때는 포기하자! 그렇게 하고도 이길 수 없다면 그만두겠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체력이 고갈 되거나 도저히 그런 생활이 지겨워 미쳐 버리고 말거나, 이길 힘이 비축되기도 전에 자본금이 말라버린다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말입니다. 나가모리 사장은 그런 각오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 명의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의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회사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드높은 기상도 꿈도 모두 사라지고 만이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경쟁업체가 1개월 만에 납기를 해낸다면, 일본전산은 15일 만에 가능하게 한다.'는 전제 조건을 세웠습니다. 경쟁업체보다 절반의 기일로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구상하고 설계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한번 실패한다고 해도 '한번 더' 해볼 수 있고, 한번 샘플을 완성시켜 납품했

한 가지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사가 가진 기술력을 어필하려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라는 카드를 시선을 끌지 못하게 됐습니다.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가 싸게 주겠다고 자기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면 결국 시장이 공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명의 소기업이지만 가격은 제대로 받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대신 "납기를 절반으로"라는 문구는 확실하게 결정타를 날려주었습니다. 처음에 믿지 못하던 거래처들이 약속대로 납기를 절반으로 지키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본전산이 성장할 수 있었던 첫 관문이었습니다. 나가모리 사장은 24시간중 개인이 써야 하는 시간을 8시간내로 줄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짧게 깎아 머리감는 시간을 줄이고, 옷 빨리 갈아입는 방법, 출근 빨리하는 방법, 이 빨리 뛰는 방법, 회의 빨리 끝내는 방법 등을 궁리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가 경쟁기업을 이기는 소중한 비결이었습니다.

2배와 절반의 법칙

는데 거절당하면 '한번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보다 두 배 이상 일을 하면, 기회도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십 걸음 앞서있는 경쟁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환경은 '누구에게든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조건뿐입니다. 결국 시간투입을 두 배로 늘려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배 이상 일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투자하다보니 개발과 납품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간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분이거나 큰 성과를 올린 유명 인사들이 종종 간증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 자기 교회 안에서의 간증이라고는

증이 더 의미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어려워하는 것은 간증을 하다보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간증은 하나님에 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례를 받을 때, 혹은 제자훈련을 마쳤을 때와 같은 경우에 자원에 한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증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증은 세 부분으로 나뉘

어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은혜 받았던 과정이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하게 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듣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같은 은

한천영 칼럼



한천영 목사
갈릴리산교회

적 근거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행 9, 22, 26장)

처음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간증하고 싶은 내용을 종이에 다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행 연습을 해가면서 될 중요한 것부터 점차 줄여서 10분 내외의 간증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마 2쪽 분량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완성된 간증문을 적어서 단 위에 서시되, 읽지만 말고 평상시 말하듯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증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도구가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태와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간증의 성격

다른 교회 교인들의 간증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자기의 간증이고, 다른 교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간

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자랑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간증은 새가족 교육을 마쳤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세

집니다. 은혜 받기 전의 삶, 은혜 받은 내용과 과정, 은혜 받은 후의 삶입니다. 첫째로, 은혜 받기 전의 삶에 대해서는 배경 설명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간증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만

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은혜 받은 후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기 전의

박용덕 칼럼



박용덕 목사
남가주빛나리교회

기도의 멧집을 키우라

필리핀의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가 복싱 역사상 세계 두번째로 6체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31세의 파퀴아오는 2009년 11월14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 베가스에서 열린 세계복싱기구(WBO) 웰터급 타이틀매치서 미겔 고토(푸에르토리코)를 상대로 12라운드 5초 만에 TKO 승을 거뒀다. 파퀴아오는 이날 승리로

세계 복싱계서 두 번째로 6체급을 석권하며 세계 최고의 복서로 등극하게 되었고, 이 한 경기에서의 개런티만도 13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파퀴아오는 168cm의 단신이지만 지난 1998년 WBC(세계복싱평의회) 플라이급서 챔피언에 오른 이후 국제복싱연맹(IBF) 슈퍼 밴텀급 챔피언, WBC 슈퍼페더급 챔피언, WBC라이트

급 챔피언, 국제복싱기구(IBO)라이트웰터급 챔피언, WBC 웰터급 챔피언을 차례로 차지하며 지난 10여 년간 세계 복싱계를 주름잡았는데, 자신이 지난해 12월 KO승을 거뒀던 오스카 텔라호아 이후 사상 두 번째로 6체급 정상에 올랐다.

지난 10여 년간 각 체급 정상을 차지하며 14kg의 체중을 오가며 경기를 이어온 파퀴아오는 사상 첫 7체급 석권도 노리게 된 가운데 통산 전적 50승(38KO승)2

무3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니 파퀴아오는 빠른 스피드에 정교한 기술 그리고 강한 멧집이 유명하다.

아무리 맞아도 웬만해서는 끄떡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강한 근육질과 멧집을 보유하는 것이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멧집과 이

길 수 있는 근육질만 발달되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자라면 우리들 역시 기도로 근육질을 강하게 하고 멧집을 키워야 한다. 지금도 어두움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덫에 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욱 옹드려 기도로 무장하는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멧집, 시련과 환난도 학을 띠고 도망가는 그런 멧집, 멧집을 갖자는 것이다.

무료 법률 상담 안내

주제 : 법률 강연 및 상담

장소 : 미주 성산교회
일시 : 3월 21일(주일) 오후 2시 30분
주제 : 법률 강연 및 상담
대상 : 법률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목회자 추천을 받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무료 상담)
법률 강연 주제 : 취업비자 & 취업이민, 종교비자 & 종교이민
개별상담분야 : 모든 이민법과 관련된 부분, 소송, 기업법 등

이문규 법률 그룹은 글로벌비전뱅크(대표 이길소 선교사)와 함께 미주성산교회에서 제1회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법률 상담을 받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최 : 로스앤젤레스 교역자협의회 회장(표세홍 목사)
The los angeles council of korean churches

문의 : 미주 성산교회 213-975-1111, 이문규 법률 그룹 213-380-2828

김지성 칼럼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는 '메가트렌드 2010'이라는 저서에서 '영성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며 '영혼이 있는 사업'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유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미국의 잘 나가는 40대 최고경영자(CEO)들이 갑자기 추락하는 것은 기업 마인드, 정신 또는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지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광야의 수도원으로 가서 영성을 지키고 암흑 속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 우리의 잠든 영성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영성'으로 교회를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영성'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성'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교회를 힘 있게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집니다. 영광스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에 몰입함으로써 '영성'은 세워져 갑니다. 또한 영성은 반드시 품성으

“잠들어 있는 영성을 깨우라”

적했습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것은 성경적 영성과 다른 것이지만... 미래사회에서 정신이나 사상, 마인드, 또는 보이지 않는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기업이 아무리 자산이 많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도 그 기업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기업정신, 마인드, 영성이 없으면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교우, 좋은 목회자, 좋은 시설,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살아있는 영성이 없으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기는 본질적인 교회의 힘은 시대를 깨우는 정신, 시대의 허물을 치유하는 마인드, 즉 살아있는 영성으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소유할 '부의 미래'는 영성입니다. 중세교회가 암흑시대에 접어들자

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영성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품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품성 말입니다. 영성은 품성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정말 영성에 바탕을 둔 말인지, 행동인지는 품성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품성 따로, 말 따르는 결코 영성에 바탕을 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영성이 진정한 재산이기에 그것이 재산임을 인정한다면 일부러라도 영성을 위해 시간과 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미래의 부는 '영성'입니다. 진정한 '미래의 부'인 '영성'을 쌓는 일에 우리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겨자씨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 13:31-32) 여기에 나타난 겨자씨의 특징은 작다는데 있습니다. 예컨대, 콩이나 옥수수 씨앗에 비하면 분명 작은 것입니다. 호박씨나 땅콩알도 겨자씨보다는 훨씬 더 큼니다. 그러나 작지만 그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내재되어있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장차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통이 크고 팔이 넓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는 작게 보이지만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 마음껏 뻗어갈 수 있는 꿈을 담고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펼쳐질 위대한

박성근 칼럼



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겨자씨입니다. 우리 교회도 겨자씨와 같습니다. 작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데로, 저희 교회에는 소위 말하는 큰손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수백만 불씩을 내어 놓을 거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겨자씨들은 많습니다.저는그것이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집사님 한 분이 제 사무실을 찾아 오셨습니다. 손에 정

을까요? 기뻐하며 감격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건축의 불씨를 틀 겨자씨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80이 넘는 권사님 한분이 9천불을 건축헌금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병원에 입원한상태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었습니다. 자신은 떠

겨자씨의 헌신

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을 들고 오셨습니다. 장차 이 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건축에 사용해 달라며 1만 불을 놓고 가셨습니다. 결코 돈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아들이 보내준 금쪽 같은 생활비를 쓰지 않고 모았다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힘들게 살면 서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 드러진 그 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

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을 남긴 것입니다. 저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그것을 이룰 겨자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깨어질 때 가능합니다. 장차 공중의 새들이 깃들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목에 힘이 빠지면서 병뚜껑을 따기가 힘들거나 물건을 세게 잡지 못해 떨어뜨린 경험이 있다면? 또는 마우스를 잡을 때나 빨래를 짤 때 손목에 갑자기 저리고 아픈 증상이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수근관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 손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수근

지고 좁아진 수근관이 감싸고 있는 신경을 압박하게 된다.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 통증은 손을 움직이거나 털어주면 통증이 가라앉는 형식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 대개 '수근관증후군'의 증상을 '손이 시리고 저리다' 또는 '손아귀 힘이 떨어졌다'고 느낀다. 적

거나 근육축의 기능 장애로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치료법으로는 침과 찜질로 손상 조직의 부기를 가라앉혀 원래대로 재생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가벼운 경우 냉찜질과 휴식을 취하고, 심한 경우에는 손목에 부목을 대어 1~2주 정도 고정시키거나, 약물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목의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손목을 중립으로 두고 컴퓨터 자판을 치는 습관이 중요하다. 즉 손목에 각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를 할 때는 목과 어깨 근육의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고, 한 자세로 장시간 하지 않아야 한다. 한 시간에 10분가량은 중간휴식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손목에 힘이 자꾸 빠져요!

관(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자 혈관을 감싸고 있음)이라고 하는 손목의 터널에 눌러 압박을 받으면서 통증이 유발되는데, 이를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한다. 손목을 무리하여 사용하게 되면 약해

지 않은 환자들이 노화나 피로, 또는 혈액 순환 장애 때문에 생긴 증상으로 자가진단하기 쉬워 한참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곤 한다. 하지만 '수근관증후군'을 오래 내버려 두면 마비현상이 오

증상이 호전된다. 손목 관절 주변의 인대나 근육에 봉약침치료를 하면 효과적으로 '수근관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다. '수근관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손

특히 마우스를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잡고 있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휴식할 때는 잊지 말고 손목 관절과 손가락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도록 하자. 손목관절과 손가락 스트레칭은 손목과 손가락을 구부리는 근육들과 손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자생 칼럼



윤제필 대표원장
자생한방병원 플러튼분원

성경에 나오는 용어,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어려운 용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한글성경난해용어 해설집

- 생소한용어 1500개를 비롯해 총 1800여개의 난해용어가 가나다 순으로
-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에서 어려운용어발체
- 주요 영어성경을 참조해 한글,한자, 영어동시 표기
- 용어가 등장하는 성경구절 명시
- 수첩크기로 휴대용이 (어려운 용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한글성경난해용어 해설집 _____ 권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싸인) _____

가격 텍스포함 10불
전화,팩스,메일로 신청 받습니다.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90010
TEL : 213 739 0403 / FAX : 213 739 0408

복음의 절대성 강조한 연설문으로 박해 시작돼

< 프랑스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찾아서 > 깔뱅이 교육받은 학교들

깔뱅이 파리에서 다녔던 학교들을 찾아다니다가, 두번째 학교인 플레주 몽테규 바로 옆에 위치하며 오늘날까지도 현존하는 한 학교를 찾아냈다. 1460년에 세워진 플레주 상트 바흐브(College Sainte Barbe)라는 학교로 이냐스 드 로올라가 이 학교를 다녔으며, 프랑스 정부가 소개하는 역사 안내판에는 깔뱅이 이 학교를 다녔을지도 모른다는 좀 애매한 글이 있었다.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찾으려 했지만 너무 오래된 역사라 다른 정보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깔뱅이 파리에서 만났던 첫 학교 스승인 마튀랭 꼬르디에가, 여러 학교(colleges de Reims, de Sainte-Barbe, de Lisieux, de la Marche, de Navarre)에서 가르쳤다는 기록으로 미뤄볼 때, 깔뱅은 새로 전학온 플레주 몽테규 바로 옆에 위치한 플레주 상트 바흐브에서 강의하는 스승의 강의를 들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깔뱅은 마튀랭과는 계속 만나 계속 그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 학교가 있는 발레트 거리(Rue Valette, 당시 Rue Des Sept Voies)에는 여러 학교들이 있었는데, 사진 왼쪽으로 깔뱅이 곧이어 다니게 될 플레주 포흐테가, 맞은 편에 플레주 바흐브, 그 앞쪽으로 플레주 몽테규가 있었다. 참고로 프랑스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깔뱅이 파리에서 다닌 세번째 학교 플레주 호알(College Royal; 왕립학교)

부르주에 이어 오를레앙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깔뱅은, 1531년에 왕립학교인 플레주 호알[College Royal; 현 플레주 드

프랑스(College de France)]에서 보다 심도 있게 어학 공부를 하고자 한다. 이 학교는 프랑수와 1세가 오를레앙에서 학위를 마치고, 자연 과학과 철학, 역사, 신학, 법, 의학을 공부한 당시 최고의 인문주의 학자인 르페브르와 함께, 수학을 가르쳤던 기욤 부데(Guillaume Bude 1467년-1540년)와 그의 측근 인문주의자들의 제안으로 소르본느 대학의 오랜 전통에 맞서는 대안으로 설립한 학교이다. 2개의 헬러어 과목, 히브리어 세 과목, 수학 한 과목 등 총 여섯 과목을 가르치는 왕실 학교이다.

이 학교의 설립자 부데는

히브리어를 가르쳤는데, 깔뱅은 이곳에서 인문주의 교육을 철저히 받게 되며 구약성서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언어인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현재 이 학교는 개방 대학이며 프랑스 학술원 회원이 강의하는, 프랑스 최고 지식의 전당이다. 무엇보다도 오를레앙 출신으로 세계 최초로 번역 이론 체계를 세우고 당시 개혁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다가 순교한 에티엔 돌레(Etienne Dolet 1509년-1546년)가 바로 이 학교 출신이다. 이 대학을 통하여 프랑스로 문주의(人文主義)는 호기를 맞게 되었다. 언어학의 대가인 미셀 푸코가 이곳에서 교

(Etienne de La Forge)의 집을 정기적으로 드나들게 되었다. 하지만 개혁주의에 대한 박해 때문에 비밀리에 제라르 후셀(Gerard Roussel)의 인도 아래 집에서 모였다.

안타까운 것은 에피엔스가 1535년 2월 15일 벽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화형을 당하는데, 당시 나이는 5-60세 정도였다. 그는 벨기에 Tournai 출신으로 파리에서 오래 살았고, 부유한 상인으로 복음을 접한 후,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고 성경을 출판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학교도 세운다. 깔뱅이 자유파(les Libertins)를 반

호양은 종교 개혁 지지자와 가톨릭 보수파 교수들 간의 긴장이 증가되고 있던 시기였다. 파리에서 여러 집을 전전한 뒤 깔뱅은 마침내 포흐테 대학(College Fortet)에 정착하였다. 현재는 대학 건물에 연류되었다는 혐의로 화형을 당하는데, 당시 나이는 5-60세 정도였다. 그는 벨기에 Tournai 출신으로 파리에서 오래 살았고, 부유한 상인으로 복음을 접한 후,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고 성경을 출판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학교도 세운다. 깔뱅이 자유파(les Libertins)를 반

호양은 종교 개혁 지지자와 가톨릭 보수파 교수들 간의 긴장이 증가되고 있던 시기였다. 파리에서 여러 집을 전전한 뒤 깔뱅은 마침내 포흐테 대학(College Fortet)에 정착하였다. 현재는 대학 건물에 연류되었다는 혐의로 화형을 당하는데, 당시 나이는 5-60세 정도였다. 그는 벨기에 Tournai 출신으로 파리에서 오래 살았고, 부유한 상인으로 복음을 접한 후,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고 성경을 출판한다.

호양은 종교 개혁 지지자와 가톨릭 보수파 교수들 간의 긴장이 증가되고 있던 시기였다. 파리에서 여러 집을 전전한 뒤 깔뱅은 마침내 포흐테 대학(College Fortet)에 정착하였다. 현재는 대학 건물에 연류되었다는 혐의로 화형을 당하는데, 당시 나이는 5-60세 정도였다. 그는 벨기에 Tournai 출신으로 파리에서 오래 살았고, 부유한 상인으로 복음을 접한 후,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고 성경을 출판한다.

호양은 종교 개혁 지지자와 가톨릭 보수파 교수들 간의 긴장이 증가되고 있던 시기였다. 파리에서 여러 집을 전전한 뒤 깔뱅은 마침내 포흐테 대학(College Fortet)에 정착하였다. 현재는 대학 건물에 연류되었다는 혐의로 화형을 당하는데, 당시 나이는 5-60세 정도였다. 그는 벨기에 Tournai 출신으로 파리에서 오래 살았고, 부유한 상인으로 복음을 접한 후,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고 성경을 출판한다.

호양은 종교 개혁 지지자와 가톨릭 보수파 교수들 간의 긴장이 증가되고 있던 시기였다. 파리에서 여러 집을 전전한 뒤 깔뱅은 마침내 포흐테 대학(College Fortet)에 정착하였다. 현재는 대학 건물에 연류되었다는 혐의로 화형을 당하는데, 당시 나이는 5-60세 정도였다. 그는 벨기에 Tournai 출신으로 파리에서 오래 살았고, 부유한 상인으로 복음을 접한 후,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고 성경을 출판한다.

호양은 종교 개혁 지지자와 가톨릭 보수파 교수들 간의 긴장이 증가되고 있던 시기였다. 파리에서 여러 집을 전전한 뒤 깔뱅은 마침내 포흐테 대학(College Fortet)에 정착하였다. 현재는 대학 건물에 연류되었다는 혐의로 화형을 당하는데, 당시 나이는 5-60세 정도였다. 그는 벨기에 Tournai 출신으로 파리에서 오래 살았고, 부유한 상인으로 복음을 접한 후,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고 성경을 출판한다.

지만 깔뱅이 이 연설문에 연루되지 않고 단지 그날 강연에만 참석했다면, 1년 동안 피신하는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깔뱅이 이 연설문에 연루됐던 것이라면, 깔뱅이 당시 이미 복음에 대한 확신을 품고 있던 회심자였음을 증명한다.

그러면 최소한 깔뱅의 회심 시점은 폼의 연설문 사건 이전인 1533년 가을이 된다. 사실, 깔뱅이 언제 회심했느냐는 학자들 사이에 여전히 논쟁하고 있는 민감한 부분이다. 그러나 일반 독자들의 경우, 회심의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이다.

학자들은 깔뱅의 글에서 그의 회심의 흔적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글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저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나 표현들을 숨길 수 있다. 그러나 글보다 옆에서 그를 지켜봤던 사람들의 증언이나 역사적 흔적들이 훨씬 더 유력한 증거이다.

만약 깔뱅의 회심이 1533년 전후라고 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부르주에서 깔뱅이 벌인 개혁자로서의 활동이 프랑스 교회가 깔뱅을 우상시해서 만들어낸 역사 날조이거나, 날조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면 깔뱅 자신은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길로 사람들을 몰고 간 이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깔뱅은 단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니고데모처럼,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사에 참석하며 사제직 수행과 성례시행을 거부하지 않았던 자신과 같은 사람의 행태를 니고데미즘(Nichodemism)이라 불렀다.



플레주 상트 바흐브.

로마 대사(1515년)로 있다가 귀국 후 언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왕립학교 건립을 준비하였는데, 국왕은 에라스무스에게 학장이 되어 준다면 천 권 이상의 도서를 제공하겠다고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추기경 제안도 거부한 에라스무스와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1530년에 학교가 세워진다. 바타블(Vatable)이

수로 역임했다.

파리에서 다닌 네번째 학교 플레주 포흐테(College Fortet)

깔뱅은 파리에 다시 머무는 동안 플레주 몽테규 동문인 폼 가문과 새롭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깔뱅의 사촌 올리베평의 영향을 받아 종교개혁에 동조하던 부유한 상인 에피엔스 드 라 포르주

대하는 책 4장에서 “그를 기억하는 것은 축복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위한 진정한 순교자와 신자”라고 소개할 정도로 신실한 위그노였다.

깔뱅은 오를레앙으로 가서 1532년 1월 14일에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뒤 파리로 돌아오는 시기인 1533년경에, 플레주

미드웨이 렌트카

MIDWAY CAR RENTAL

최저의 가격
최고의 선택
최상의 서비스

목사님, 선교사님
특별한 할인 혜택
적용해드립니다.

경제적 마일리지 최고의 자동차 / LA공항과 한인타운의 편리한 위치 한인타운내 무료픽업
각종차량 원비(고급승용차, 스포츠카, 컨버터블 및 기타)
7~15인승 밴 보유 / 교통사고로 인하여 렌트카 필요하신분

213.487.4700

한국인 담당
조수아 김

Toll Free: 800.499.5779 / Cell: 213.327.6194
위치: 2926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월셔와 후버)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의 정육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Prime 과 Choice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갈비 전문점/교회 단체 특별가격

프라이 생등심	프라이 꽃살	오리고기
프라이 갈비살	초이스 찜갈비	흑염소
샤브 샤브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돈까스/비프까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11가점 (1호점) Tel 323.733.4677

혜밀리 종합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정직 · 신용 · 믿음으로 모시겠습니다

213.453.5900

김기형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이사는 한강(漢江) 이삿짐에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한국인이 직접 포장하고
정리정돈까지 담당하고 숙련된 경험을 이제 여러분의
KEY를 한강에 맡겨주세요! 한강은 양심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국식 포장 및 정리정돈까지”

LA 213.386.2424 O.C 949.784.2424

Local(시내) 이사 전문 • 무료견적 서비스 • 야간이사 OK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온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금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 \$40 한달 온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JAMES JHUNG (제임스 정)
EXECUTIVE DIRECTOR

Tel : 213.725.7217 세일즈 하실분 모집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혜밀리 만물상

주 7일 OPEN | 가정용, 사무용, 모든 가전제품
좋은 가격에 사고 팝니다.

세탁기, 드라이어, 냉장고 수리 교환 및 판매, 운반 설치

전화문의
환영 **T.213-247-9555**

SK smart-naephone

- SK한국전화기를 설치, 한국전화번호를 받고
한국시내요금으로 미국, 한국 양방향 통화
- 서울전화번호만 누르세요
- 분당 2¢의 저렴한 요금

Taurus System USA Inc.

문의 : 213-435-0608

반값으로 할수있다!

- 차바디수리 50% 절약 -
“획기적인 바디수리 시스템”
오토맥스 오토바디

213-265-8485, 213-388-4464
Main Office 2975 Wilshire Blvd 350 Los Angeles, CA 90010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저체사육, 자체차량, 전문고급인력, 30년 경험의 현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삿짐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전미주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는 현대통운의
지사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목적 컨테이너 차량 보유

타주 이사, 시내 이사, 귀국 이사

무엇보다도
1-866-545-2424
323.766.1111

3022 S. Western Ave, LA, CA 90018
e-mail : skook@hyundaemoving.com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버 / 쿠션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개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CITI BLINDS

MR 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한국 ₩ ↔ 미국 \$

당일 동시 (고액 전문)
(213) 388 - 4989
소액도 가능합니다

건축 설계 도면 디자인

이경신 Kyong S. Lee (Mary)
Interior & Landscaping Designer,
Architecture Web & Graphic Designer

ARCHITECTURE DESIGN
INTERIOR DESIGN
LANDSCAPING DESIGN
PERMIT DRAWING

E-2 Visa 및 투자 이민 가능하며, 언제든지 투자 상담 환영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Income이 나올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 컴퓨터 개인교습도 가능합니다.

Subject : Microsoft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Photoshop, Illustrator, Webdesign course

Tel. 213-284-4111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모든 자동차 유리 수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Foreign & Domestic Car
- 새 유리 & 중고 유리
- 넓은 커버하우스 인벤토리
- 무료 전화 견적
- Low, Low Prices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서비스
- Stone Damage 수리

물 맞은 곳 때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5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나라 이주 공사

정직, 성실,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 영주권 갱신 및 분실
- 재입국 비자
- 소액재판 신청, 번역/통역
- 메디칼 신청, SS/GR 신청
- 자녀 양육비 신청
- 속성 결혼/이혼 수속
- 각종 서류 작성 대행

(213) 388-9282 (213) 909-1103

냉난방기 설치 전문업체 경력 30년 유망브랜드 냉난방기 전문 취급업체 / 미주 전지역 LG, 현대, 위아, 삼성

AMAZING 에어컨백화점

7년 연속 에어컨 1위

에어컨 수리 & 수평선정하에 앞섰습니다. LCF 863510

323.525.0011/213.200.5388/amazingaircon.com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미주성결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TEL : 323-643-0301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3월 15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956-2900
2221 W. Colchester Dr.,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전액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솔로몬대학
Solomon University, SU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 공동 학위 수여

TEL : 213-381-7755 |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1-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집에서도 밖에서도 우리는 아이토크비비로 통한다

한인들을 위한 맞춤형 플랜!

한국 집전화로 주로 통화하는 나는

글로벌 플랜 \$24.99 /월

로컬·미국·캐나다 장거리·한국포함
27개국 무제한 통화!

한국 휴대전화로도 자주 통화하는 나는

글로벌 플러스 플랜 \$34.99 /월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지금 가입하시면, [30일 환불보장]

- 아이토크글로벌 매월 500분 무료!(2 라인)
- 마이코리아 넘버 무료!
- 선평비 (\$9.99) 무료!

친구추천 Event

함께 쓰 Go! | 한 명 추천할 때마다 현재 이용중인 플랜 1개월 무료!
절약해 Yo! | 추천 받은 분께도 500 포인트 지급!(\$5 상당)

행사기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Verizon, AT&T 가정용전화 완전대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1-800-875-8318 고객센터 |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www.Korea.iTalkBB.com

아·이·토·크·비·비
iTalkBB

iTalkBB와 함께 성장하실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213-784-1133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안전한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 가능한 국가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외의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계약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중앙방송 인터넷 웹사이트 (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2009년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아이토크글로벌

- 본인의 휴대전화를 아이토크비비 아카운트에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한국 포함 27개국에 국제전화 이용가능
- 인터넷 전용선이나 IP BOX가 없이도 접속번호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 가능
- 아이토크비비 가정용 전화 서비스와 동일한 안정적인 통화 품질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마이 코리아 넘버

- 복잡한 접속번호 No! 국가번호 No!
-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간편하게 고객님께 전화
- 한국내 요금으로 국제전화에 대한 부담 Zero
- Caller ID를 통해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번호 확인 가능
- 한국의 가족 및 친구를 위한 최고의 선물
- 한국과 교류가 많은 비즈니스맨에게 적합

Verizon, AT&T 가정용전화 완전대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1-800-875-8318 고객센터 |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www.Korea.iTalkBB.com

아·이·토·크·비·비
iTalkBB

북미주 **현대자동차** 딜러중 최대규모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STORE

푸엔테힐스 현대의 **차별화** 선언!



자체 용자 시스템 운영

혜택) 소셜 번호가 없으시거나, 있으셔도 크레딧이 없으신 분들 적은 돈으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자체 용자해 드립니다.



목회자 특별 리스 및 원가세일 단행

혜택) 목회자이시면서 소셜이 없으신 분, 크레딧이 없으신 분과 나쁜신 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또한 구입을 원하실 경우 특별가격에 도와드립니다. (단, 목회자 증명서 필요)



북미 최대 단일현대 딜러

혜택) 총 부지 6,8에이커로 800대의 자동차를 동시에 전시 판매할 수 있으며, 편안하고 품위있는 차량구입에서 정비, 바디샵과 사후 관리까지 최첨단의 시설로 원스탑 딜러로 고객만족을 위해 만전을 기함



고객을 우선시하는 딜러

혜택) 우리는 고객을 우선시하기에 아이들 놀이방 및 간식 제공, 서비스 대기시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및 차량 구입차 전원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세차 및 일정의 서비스 고객들께 평생 무료 오일체인지 등과 함께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한인 특별 용자 프로그램

혜택) 소셜 필요 없음, 크레딧 필요 없음, 나쁜 크레딧 OK, NO DOWN (단 방문 비자 제외)

상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딜러에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3월 한달 스페셜 세일!



2010 NEW SONATA GLS

SALE \$750 CASH BACK과 **0%** 특별이자

LEASE \$179 +Tax 36Mo/12K mile Drive off 1,499

(O.A.C)Model #26404 in stock only



2010 NEW ELANTRA GLS

SALE \$1500 CASH BACK과 **3.9%** 특별이자

LEASE \$159 +Tax 24Mo/12K mile Drive off 1,999

(O.A.C)Model #44414 in stock only

** 푸엔테힐스 바디샵 딜러 자체내 오픈 **

검증된 기술자 채용, 최첨단 도장 처리시설 완비, 무료견인및 무료 견적, 신속하고 깔끔한 뒷처리, 모든 브랜드의 자동차 100% 소화

오픈 기념 행사

수리하시는 동안 무료 렌트해 드림, **무료 휠 얼라이먼트** 해 드림, 3월 한달 방문하시거나 서비스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삼리 정
Fleet Manager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4.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 월-토 9:00am~9:00pm
▶ 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 월-토 7:30am~6:00pm
▶ 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함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스티브 김 연디 김 스티브 박 지니 안

푸엔테힐스 **현대**

WWW.PHHYUNDAI.COM T.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t'll be the next year you have your freedom. We'll let you return it.